

## 인간주의에 바탕둔 새 대학상

우리 대학인들은 지금 저물어가는 20세기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 세기를 설계해야 할 준엄한 시점에 서있다. 새로이 펼쳐질 이 미래의 대학상을 그려내는 책무는 그 어떤 전문가에게 위임할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학인 스스로가 떠 맡아야 할 엄숙한 과제이다.

지난 한 세기의 대학사를 일관해 온 교육의 관심사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념적 가치의 요람 및 저수지의 역할'이요, 다른 하나는 '현대적 지식, 기술을 탐구하고 공급하는 원천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은 근대사의 시련기 속에서 이보다 훨씬 벅찬 짐을 감당해야만 했다. 국권상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술한 정변과 사회 경제적 갈등을 치르면서 우리의 대학은 막중한 사회적 기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민족의 각성과 부흥·번영을 위해 한국의 대학이 기여한 바는 참으로 컸다. 그러나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이념적 가치의 요람 역할에서나 현대적 지식·기술의 공급원이라는 임무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오늘의 대학은 더이상 시대의 최선두에 선 가치·지식·기술의 독점적 생산자가 아니며, 가장 풍요로운 원천이라 자인할 수 없게 되었다.

급변하는 시대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사회적 위상은 더욱더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대학 밖의 두뇌집단이나 대기업들이 독자적인 연구소를 세워 새로운 기술, 소재의 개발을 추구하는 현상이 바로 그 실례이다. 물론 대학이 지식과 기술의 상업적 가치에만 주력할 수는 없지만, 응용과학이든 기초과학이든 앞으로의 학문은 재래식 상아탑의 느린 진보감각으로는 소임을 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기술적 발전에 따라 사회관계와 인간의 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리라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미래의 도전이다.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기 인식과 문화적 정체성(正體性)이 붕괴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다. 사회관계의 변화를 새로운 균형으로 통합하는 사상적, 사회적 전진이 이룩되지 못한다면 미래의 세기는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세기가 될 것이다.

분단 반세기, 개화 한세기를 맞아 나는 민족교육을 통한 대학 이념의 새로운 조화와 정립을 제창한다. 민족의 생존에 떠밀려 고유문화의 특성을 저버린 채 교육의 효과에만 집착하여 치달려온 우리의 교육이념을 재설계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본다.



고려대 총장      흥 일 식

새로운 민족교육의 좌표는 마땅히 범세계적인 보편성과 더불어 우리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특히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孝)사상이 그 기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간 이외의 어떤 권위, 어떤 가치도 인간 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 효의 세계다. 효는 백행의 근원이며, 효사상은 인본주의, 인내주의, 이타주의와 평화 공존주의를 응축하고 있었다. 인간성 상실시대를 극복하고 민족사의 약진운비를 기약할 새로운 민족교육은 이같은 인간주의에 뿌리 내려져야 한다.

이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이 실천 해결해야 할 절실한 일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번째 과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중등교육의 전인교육화를 기하지 않고는 인간성이 바로 설 교육의 기틀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망국적 과외와 사교육을 근절하는 학생선발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의 대학이 지향할 두번째 과제는 '대학체제의 현대화'이며, 그 요체는 '중심의 분산, 분권과 수평의 통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전체의 역량을 조직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의 현대화가 없이는 진정한 현대화가 완성될 수 없다.

세번째 과제는 연구·교육·봉사의 발전을 위한 사회의 투자를 이끌어낼 프로그램을 착안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대학에 대한 국가, 사회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대학 재정이 취약하니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은 호소력이 박약하다. 대학은 뚜렷하고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이 산출할 공공이익을 목표로 한 사회적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즉, 민(民)에 먹혀들 수 있는 대학의 이상과 실천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네번째 과제는 개성적인 학풍(學風)의 형성 및 발전에 있다고 본다. 대학의 학풍이란 단순한 개성의 표현이 아니다. 학풍을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 학문적 깊이가 충실해야 하며, 여러 학과 및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학제적(學際的) 유대와 철학적 기반의 형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축적 속에서 그 대학의 이념과 더불어 응화될 때 학풍의 독자적 면모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 대학 나름의 학문적 자립과 재창조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학문의 세계적 보편성과 흐름을 호흡하면서 자국의 역사, 문화에 뿌리내린 개성을 아울러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